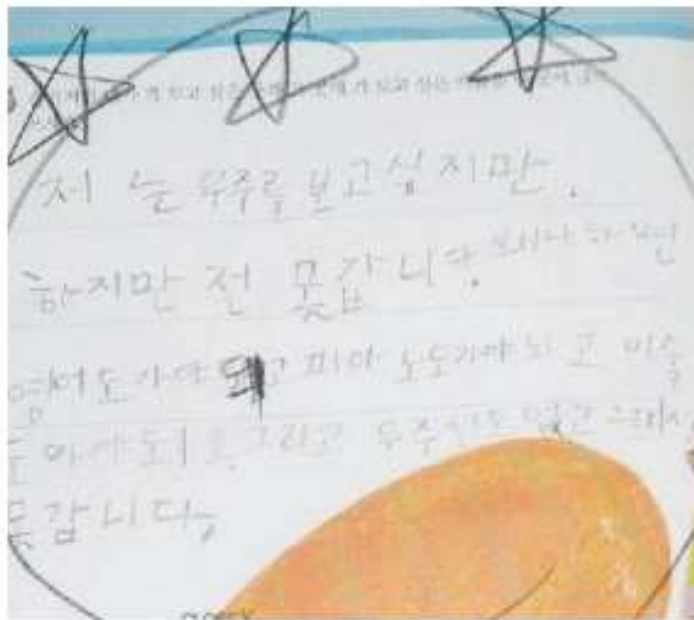


한국의 교육열

학습목표:

1. 한국의 입시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다.
2. 한국의 교육열과 사교육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한국의 초등학교생이 쓴 글이다.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보시오.



저는 우주를 보고 싶지만
하지만 전 못갑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가야되고 피아노도 가야되고
미술도 가야되요. 그리고 우주선도 없고
그래서 못갑니다.

한국은 왜 대학진학률이 높을까?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특수목적 중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한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고 그 비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대학교 진학률도 80%를 오르내리는데 이 비율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 수능은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매년 11월에 실시된다. 수능은 대학 진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교육은 사회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지금도 학력이 취업과 임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학력별 임금차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더라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 진학률

전체 졸업생 중 상급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의 비율

▶ 임금

일을 하고 받는 돈

- 
- 1) 여러 나라의 교육열에 대한 말해 보세요.
 - 2) 한국 대학의 진학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말해 보세요.

한국은 진학을뿐만 아니라 교육열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는 결국 한국 경제가 짧은 시간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몇 가지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비로 적지 않은 돈을 쓴다. 정규 학교교육만 받으면 큰 돈이 들지 않지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사교육비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외 보충 교육비(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인터넷강의 과외비 등)

조기유학

초·중·고 학생들이 외국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며 경쟁한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생활은 더욱 힘들다. 그래서 '고3병', '입시지옥'과 같이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표현하는 말도 생겨났다. 최근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좋은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면서 일부 고등학교의 입학 경쟁도 치열해지고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연령도 더 낮아지고 있다.

또한 대학 진학과 취업에 영어가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에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쓰는 나라로 조기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 이때 어린 자녀를 외국에 혼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같이 가게 되고, 아빠는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보낸다. 이런 상황에 있는 아빠를 기러기 아빠라고 한다. 1990년대 말 조기유학 열풍으로 시작된 기러기 아빠의 증가는 가족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합격 기원 선물

한국에서는 중요한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선물을 한다. 엿과 찹쌀떡은 잘 붙고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로 많이 주고 받았다. 요즘에는 잘 찍으라는 의미의 포크, 잘 풀라는 의미의 휴지,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의 거울 등도 선물한다.



- 
- 1) 여러분, 카자흐스탄에서 “기러기
아빠”말을 들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이유를 말해 보세요.
 - 2) 카흐스탄에 합격 기원 선물에 대한
말해 보세요.

배움과 나눔, '축제'로 알리다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제2회 봉사페스티벌(奉仕-festival)이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배움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다채롭고 폭넓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봉사페스티벌을 주최하는 경희대학교 봉사단 단장인 K씨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교육을 넘어 보다 폭넓은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며 "환경 분야, 공정무역 분야도 페스티벌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작년의 경우 '봉사에 너무 많이 치우쳐 '페스티벌'로서 행사를 즐기고 참여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올해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홍보에 힘쓰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기획했다. 또한 학생들이 봉사페스티벌에 참여해서 스탬프(stamp)를 모두 모은 경우 '에코 백(Echo Bag)'을 선물하기로 했다. 이번 봉사페스티벌은 이웃의 날, 가족의 날, 친구의 날, 어울림의 날이라는 각각의 테마(theme)를 갖고 진행될 계획이다. '이웃의 날'에는 장애와 관련된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장애체험, 장애아동과 캠퍼스투어(campus tour) 등의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café)'가 열린다. 이 행사는 장애인 바리스타(Barista)가 직접 만들어 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학생들이 갖고 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자 진행되는 것이다. '가족의 날'에는 아동, 노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가족사랑 엽서쓰기 행사와 세대공감을 위한 퀴즈(quiz) 등이 준비되어 있다. 예비 부부 교실의 경우 미혼남녀 커플(couple)을 대상으로 결혼 준비 교육을 위해 해당 전문가를 초빙해 수업을 진행한다. '친구의 날'에는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다. 아프리카(Africa)와 중남미 국가의 가난한 아이들이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먹는 진흙쿠키(cookie)를 만드는 시간도 있다. 마지막 날인 '어울림의 날'에는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에는 '사

랑의 초콜릿(chocolate)과 떡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고, 이때 만든 초콜릿과 떡을 인근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한다. 봉사단 단장 K씨는 "이번 봉사페스티벌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봉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며 "다음에는 더욱 노력하여 더 많은 봉사활동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페스티벌로 얻는 수익은 소외계층, 지역 사회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대학주보》, 2010년 5월 7일



1)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 어떤 페스티벌이 학교나 대학교에 있습니까?
발표를 준비하세요.

2) 여러분, 페스티벌을 하려면 어떤
것을 마련할 것입니까?
발표를 준비하세요.